

느낌만이 뜻인가?

이진원
서울대학교 철학과

Is feeling enough for meanings?

Gun-Won Lee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뜻이 느낌만으로 충분한가를 살펴 본다. 느낌이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로 표현된 것에 의하여 고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서 번역에 의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택한다. 한 표현 p에 대한 느낌을 인지자 i의 주관적인 작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다름을 식별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번역에 의한다. 성급히 보편적인 뜻이 없다고는 못하나 실제로는 합의된 뜻이 사용된다. 합의는 절대적이지 않아서 절대적인 분석성과 개인성의 이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상상논리의 삼분법 보다는 다치논리가 더 엄밀하다고 본다. 그래서 합의된 뜻에서의 합의는 이분법이나 삼분법에 의한 합의가 아닌 확률적인 정도에 의존한다.

목 차

- I. 서론
- II. 느낌의 상대성
- III. 절대적인 뜻
- IV. 인지의 주관성의 작용
- V. 합의된 뜻
- VI. 합의의 상대성
- VII. 결론

I. 서론

소귀에 경을 읽는다는 말에서 처럼 듣는 사람에게 느껴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삼는 것은 뜻은 느낌만으로 충분한가하는 문제와 느낌이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만약에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뜻이 합의된 느낌됨을 부인할 수 없다면 여기에 관련된다는 문제를 고찰한다. 주어진 시간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는 만장일치의 뜻이 있겠으나, 실제로 합의는 부분적이며 잠정적인 뜻의 존재를 성급하게 부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절대적이며 보편 타당한 뜻을 식별하는 방식을 찾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의 일상 언어의 사용에서의 분석성과 종합성의 구분이 경험론의 한 특단적인 이론이라는 워인 Willard von Orman Quine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택하는 방식은 활용가능한 방법이 극히 제한되는 단점이 있더라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언어 표현을 통한 고찰을 택한다. 쉽게 사진이나 녹음으로 식별 가능한 언어 표현에 의한 논의에 국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논의는 다른 분야의 비교의 형태로 언급하는데 그치게 됨을 여쭙 할 수 있다.

이 글은 처음부터 우리 말 자체에 대한 연구이지, 어떤 특성의 이론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의 국내외의 오랜 연구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부인하지 못한다.

II. 느낌의 상대성

언어 표현의 인식도 일반적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느낌은 주어진 언어 표현과 그 표현을 인지하는 인지자의 특성의 인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 될 수 있다.

$$1. \text{느낌}_i = \text{af} \langle \text{표현 } p, \text{인지자 } i \rangle \text{ (공식 1)}$$

여기에서 인지자 i는 특성의 인지자에 의하여 달라질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동일한 표현에 대한 같은 인지자의 인지가더라도 시간 공간이 다름에 따라서 다름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읽은 「용비어천가」와 극문학자가 읽은 「용비어천가」가 다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읽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이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느낌이 기계적인 사진이나 녹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느낌은 언어 표현에 인지자의 어떤 것이 더하여진 것이고, 인지자측에서 더하여진 것이 많은 경우에 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영산홍'이 어떤 꽃인지 몰랐을 때와 수반에 꽃혀 있는 영산홍을 본 후에 '영산홍'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나의 느낌의 차이는 나의 인지 능력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인지자의 인지 능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단순한 심리학적인 자유로운 연상작용인지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며 불변하는 법칙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문제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나 언어 표현에 대한 인지도 일반적인 인식론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의 언어 표현을 인지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음을 받아 들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본다. 먼저 그 언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부세가 흉내내듯이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복사기나 사진기 같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이 언어 인지의 원초적인 작용이지만 이것을 의사소통이라는 의미의 언어 작용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소리의 경우에 여기에서 최소단위는 음절이고 표음문자인 한글에서 최소단위가 한 글자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라는 의미에서 의미의 전달은 특정의 인지자의 표상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에서 일반적이고 고정된 의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지적이고 잠정적이라도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특정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의도가 그 언어 표현을 듣거나 본 청자나 독자의 느낌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최소단위는 의소(形聲素: 언어학 사전)이고 실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낱말의 구분이 의도하였던 것이 의미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언어 사용의 현실은 아니지만 실제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었던지 여기에서 전달된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었던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정된 뜻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것을 사전적인 뜻으로 이롭다. 물론 특정의 사전에 있는 뜻이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뜻이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 뜻임을 어찌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이 최소한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과학적 지식의 내용을 반복하여 실험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과학은 느낌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뜻에서 시작한다. 느낌과 뜻은 가까운 듯 하지만 친구의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과 지방아이를 마주 잡아 보는 것만큼이나 다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와 사전적인 뜻의 사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절대적인 뜻

느낌이 체온처럼 친숙하여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겠지만 보편 타당성의 추구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뜻을 찾게 한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뜻은 보편 타당한 형식의 틀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 타당한 형식의 틀이 언어 사용의 실제의, 적어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며 이것이 엄밀히 기호보나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용없는 개념 문자이더라도 일상의 언어로 설명되고 기술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뜻 차라리 절대적인 틀은 언어 표현을 인식하는 인식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절대적인 특성을 상징할 수 없으며, 그 절대적인 틀과 상대적인 틀의 구분에 논의가 있으나 그러한 틀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 '부분은 전체보다 같거나 적다'라고 할때, 그 표현속의 절대적인 틀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느낌이나 뜻의 절대성 여부의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의미론적인 문제와 같이 느낌이나 뜻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보듯이 그 뜻이 다른 언어 표현으로 쓰여있다. 그러나 예로 '좋다'의 뜻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한 뜻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효과가 주어진다. 그러나 두 표현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 경우에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윤리학 이론속에서 같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해일 것이다. 산은 산이고 가장 좋은 이해는 '산'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자라면서 모국어를 배워온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느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다는 어려움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알아 봄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_p에 대한 인지자_i의 특정 느낌_n을 인지자_i의 다른 언어 표현_q에로의 번역_t에 의하여 가시화 할 수 있다.

$$\text{Ⅲ. } \langle \text{표현}_p, \text{인지}_i \rangle = \text{df} \langle \text{표현}_q, \text{번역}_t \rangle \quad (\text{공식 2})$$

파인이 번역의 불확정성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뜻의 불확정성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잘못은 아

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뜻의 문제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에 따라서 말하였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절대적인 틀이 아닌 절대적인 뜻은 식별 기술하는 어려움이 있다. 임금님이 말을 보고 사슴이라고 하니 '에 사슴입니다.'라고 하였다는 극단적인 예도 있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음에서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가를 음미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말 한 마리가 꼴을 먹는다. (예문 1)
- 모든 말은 꼴을 먹는다. (예문 2)
- 모든 말 만이 꼴을 먹는다. (예문 3)
- 말은 동물이다. (예문 4)
- 말사 '말'은 한 글자이다. (예문 5)
- 단어 '말'은 한 음절이다. (예문 6)

절대적인 뜻의 논의에도 일반적인 존재론적인 문제가 들어있다. Frege, Gottlob는 '개념 '말'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형식주의적인 수론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틀을 위하여 추상적인 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많은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대한 답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단지 기하학에서 가정하는 점이나, 수학 이론에서 가정하는 영(零)처럼, 추상적인 개체들을 가정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개체들도 내용없고, 순수한 형식적인 틀로서의 집합론적인 불변의 틀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이며 잠정적이라는 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여기에서 추상적인 개체도 특정의 모형들에서 (, ...)만이 고정된 해석할 수 있는 뜻을 가진다. 달리 말하면 특정의 경우들(e)에서만 실현(realization)될 수 있는 뜻을 가질 뿐임을 지적하는데 그치겠다.

절대적인 뜻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은 매우 중요하고 형식적인 틀에서 가정되어야만 하지만, 절대적인 뜻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구름 잡고 따라가는 것 같으며, 무지개 쫓는 아이와 다름이 없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Ⅳ. 인지의 주관측의 작용

노을이 질어가는
바닷가에서
숨지어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

지닌 날에 못다한
수많은 사연,
젊은 여름 날의 꿈,
설레이던 마음이 눈에 어린다. 파도(예문 7)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아니 내가 흥얼거리며, 그 목소리, 그 바닷바람, 그 모래의 발에 닿는 촉감등을, 마치 내가 그때 그장소에서 다시 서 있는 느낌을 어찌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느낌에서 어떻게 뜻을 얻는가 하는 문제 이전에 사진이나 녹음같은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느낌이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공식 1에서 표현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인지자의 상대적인 인지작용 이전의 물리적인 대상이다. 여기에서 물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자체의 밖으로 나타남만이 인식된다는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언급하지 않는다. 일단 사진이나 녹음같은 물리적인 대상들이 인지자들에 같은 자극을 준다는 가정을 하고 인지자의 주관적인 작용을 생각하여 본다.

위의 예문2와 3에서 '모든 이나 '만이' 같은 논리적인 틀을 나타내는 낱말들을 인지하는 인지자가 그러한 틀이 주관 속에 있던 언어 속에 있던 간에 얼마만큼 그러한 틀에 따라서 인지하였는가 하는 것은 인지자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정의 언어 표현에서 받은 자극이 주관 측의 어떤 것-그것이 논리적인 틀이던 중전의 경험이면 간에-을 삼기(想起)시켜 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느낌은 그 언어 표현의 인지과정에서 그 인지자의 역사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여 지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언어 사회를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언어 표현 속에

그 표현들이 사용되었던 역사에 따라서 뜻이 축적되고 형성되었다고 말하여 질 수 있다. 이것이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지의 특징이 축적되어 형성되었듯이, 그것이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는 그 언어 사용자들의 일로 나타난다고 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인지과정의 주관적인 작용이 다시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맥 속에서 발견되고 따라서 그 특정한 언어 표현 속에서 그 표현의 역사까지 반영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은 이 말을 사용하여온 사람들의 체취같은 것이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여 오면 사회의 한과 풍취가 전달되어 지는 것도 사실이다. '호박'이 '박'에 속하는 일년생 만조(蔓草)본이 아니고 '호박 나뭇잎 씹는다', '호박 덩굴이 뻗을 적 같아서야', '호박에 말뚝 박기', '호박에 침주기'나 '호박이 곱았다' 등의 사용의 역사가 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

그러나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의 특정한 표현에 대한 특정한 인지의 인지과정은 인지가 그 시점에서 이러한 역사를 일차만큼 상기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나타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침마나가 삼을 보면 그 옆에도 라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냐는 뜻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 표현이 단순히 주어진 것일 뿐이 아니고 인지가 오래동안 찾아 오면 것일 수도 있다. 삼을 찾지 못한 침마나가 도라지 더덕으로 빗 바꾸니를 채울 수도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세로로 보느라 쓰였음을 강조하여 가며 그들의 이론을 전개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허다하다. 더 나아가서는 임필성을 위하여 합의와 그 표현의 역사를 그 표현을 사용하는 한 어쩔 수 없어서, 인공적인 기호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공언어의 도입은 주관측의 상기 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과학 이론에 나타나는 뜻의 급격한 변화는 또 다시 알아 볼 수 없는 이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공 언어와 수학적 논리학의 발전이 공헌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 줄 정도이면서도 벌써 오래된 풀리지 않는 결정성의 문제는(Kurt Godel) 여러분의 연구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많은 것이 전산 처리되고, 작동하는 기계를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결정성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뿐이다.

V. 합의된 뜻

지난 달 말일로 학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난 달 중순에 있었던 교수회의는 후임 학장을 선거에 의하여 추천하였고 총장은 이 추천된 분을 교수회의의 추천에 따라서 임명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결정은 합의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두 시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합의는 좁은 의미의 장방간의 합의보다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여기에서 넓은 의미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합의된 것을 한다. 불란서 혁명, 영국의 의회정치, 철학에 있어서나, 미국의 독립이 시대에 자유주의자라는 용어와 요즈음의 구미 사회에서의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거의 서로 반대되는 뜻이 되었음을 쇼츠키(Chomsky)는 지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철에 동의하는 것이 놀랍지만 어쩔 수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사용의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뜻이라고 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사건을 만들 때 사건이 언어 사용의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현상을 기술하지만 그 언어 사용의 범위가 넓어서 그 표현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편의를 도입하는 것이 용례이지만 사전적인 정의는 기술하는 형태의 정의이다.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는 절대적인 뜻은 되지 못하고 합의된 뜻으로 받아 타당하겠다.

또 말의 뜻을 단순히 기술한다 보다는 주어진 체제에 맞도록 규정하고, 임필히 하며, 이론화 한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체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말의 뜻이 새로이 합의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정적 법칙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을 포함한 규정적인 정의에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수학 이론에서 기수가 가지는 뜻이나 교육제도

속에서 중등교육이 가지는 뜻이, 그것들이 합의된 것임을 잘 나타내어 준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면 거의 기술적인 뜻으로 보고, 중등교육 제도가 형성되었을 당시의 조성적 법칙에 의한 규정적인 합의의 특성이 희미하여 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반대로 많은 기술적인 정의가 오랜 역사상의 그 어느 때에는 조성된 것이었으나 그것이 보편화 된 이후에 사전적 정의로 기술되었음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거나 제도로 만들기 위한 필요에 따라 보다는, 화자가 청자를 교육하거나 설득하기 위하여 어떤 말의 뜻을 고치거나 새로이 정하는 경우가 많다. 선전을 위하여 하는 많은 말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 때까지는 않더라도, 그 말의 자연적인 사용의 기술이거나, 어떠한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것이 선동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가 빙자가 된다든가 사용이 적당수가 되는 것 같은 것이 이러한 뜻의 예가 되겠다.

뜻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고찰하는 이론들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뜻이 합의된 뜻이라고 보아진다.

식물학자가 아닌 나에게 진달래 가지같은 것을 보고 영산홍이라고 하여서 진달래라고하니 철쭉과에 속한다고 한다. 두 사람의 합의로 진달래가 영산홍이 되면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뜻이 대단히 복잡한 합의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VI. 합의의 상대성

중국 수매에 버를 내는 사람은 검사를 위한 등급에 따라서 농산물 값을 받는다. 검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검사 기준은 먼저 합의된 것이고 검사자는 측정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경우의 자신의 판단이외에는 합의된 등급 기준에 따른다. 어떠한 성질을 가진 버를 특등이라고 하였다면 검사하는 사람이나 버를 내는 사람이나 이러한 규정의 지배를 받는 중국 수매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합의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대한 중국 정부가 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도 같은 농산물 규격을 정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그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특정의 뜻이라는 특정의 언어 표현의 상황에서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사년이다'라는 명제는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실현되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칠년이다'명제의 실현은 지금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현될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성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 될 수 있다.

$$P \text{ --- } \langle \text{표현}_P, \text{뜻}_P \rangle \quad (\text{공식 3})$$

특정의 표현의 뜻은 특정의 모형에서 합의되어 공유되는 뜻이다.

특히 과학적 이론에 있어서 그 과학적 이론이 기술하고 있거나 기술하고자 의도하였던 모형 -- 가 곧 실제의 세계이거나 바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또는 그 상황에서 참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언어 표현이 그 특정의 이론 속에서 성공적으로 지칭하였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된다.

체계화된 이론속에서의 하나의 언어 표현의 사용은 그 체계속의 일관성이 우선한다. 그리하여 언어인 그 이론의 일관성은 그 이론이 적어도 하나이상의 모형이 있을 수 있음을 보장한다. 그 모형은 그 모형의 체계가 무한히 많다면 그 가능성은 2 (2의 알레프 영승)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이론 속의 한 언어 표현의 합의된 뜻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참일 경우는 1/2 (2의 알레프 영승 본지일)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캐나다의 객센터 대학에서 A'학점을 얻은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A'학점을 얻은 것과 같은 뜻을 가진 가능성은 임필히 확률적으로 지금 있는 대학교의 숫자 만큼이나 대단히 희박하다. 일치하는 학교 수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체로 같은 기준에 의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같이 또는 비슷하게 보는 것이 뜻의 상대성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겠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진리로 제시된 철학은 그 철학이 오래된 경우에 오래된 만큼 생애 직결되어서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치(同源道理)이라는 생각은 좋게 이해하는 한 받아 들일 만하다. 그러나 뜻의 상대성에서 엄려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삶에 실증되기조차 어려운 추상적인 이론에 있어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수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엄려를 어찌할 수 없다.

VII. 결론

유물론이 옳느냐 아니면 유심론이 옳느냐고 장시간 토론하는 학생에게 둘다 옳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답에 조금은 실망하거나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심론 속에 쓰인 마음과 물질의 뜻과 유물론 속에 사용되는 마음과 물질의 뜻이 달랐다는 사실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형이상학적 논쟁이 단지 표현상의 문제라고 단언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언어 속의 필연성이 곧 사실적인 필연성이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고 싶다. 그리고 언어형상의 인지도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논리학의 기본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필연성과 개연성의 구분이 실제의 일상 언어에서 결정 불가능한 부분이 없이 성립한다고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적어도 언어 사용의 실제에 보여지고 기술되는 형식적인 틀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파퍼(Karl Popper)의 면역성(immunization)에 의한 논지도 옳다고 본다. 이것은 논리적인 직관 주의자(Arend Heyting)의 배중율의 성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세계에 타당할 뿐이지 추상적인 개체를 다루는 형식적인 틀에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말과도 상통할 것이다. 흰 말은 말이 아니고, 나쁜 화살도 정지하여 있다는 오랜 문제가 말하여 주듯이 언어로 표현되고 기술되는 형식적인 틀과 실제의 물리적인 세계의 괴리를 다시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 이 글은 같은 제목의 1990년 『인지과학』지에 발표할 논문의 요약이지만, 제출된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자 -